

# 경상북도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유형과 작품의 성격\*

전재강\*\*

## <차 례>

1. 서론
2.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의 존재 양상
3.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유형의 성격
4.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작품의 성격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경상북도 지역 민간에 전승되는 불교가사를 기존의 불교 가사, 규방 가사와 부분적으로 대비하여 불교 가사의 민간 전승 실태,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유형과 작품의 성격을 구명하려고 집필되었다. 이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에는 다른 지역의 문헌에서 이미 전승이 확인된 작품이 <백발회심곡>, <백발가(白髮柯)>, <회심곡>, <회심가>, <빅발가>, <권왕가>, <나옹화상낙도가> 등 일곱 편이고, 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작품이 <극락가>, <인과응보가>, <부모은공가>, <부모은중가>, <인과약설>, <불교경고> 등 여섯 편이었다.

\* 이 논문은 경상북도 내방가사 조사, 정리 및 DB 구축 제1차 학술대회(-한국학 분야 토대 기초연구 지원 사업,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12.11.23.)에서 「안동 지역 내방가사 한 유형의 성격 연구」(불교가사를 중심으로)를 재정리한 것임. 그런데 이 연구가 전체 3년차 가운데 제1차년의 자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불교가사가 더 발견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때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 안동대학교

연구 대상인 전체 13편의 작품을 유형적으로 묶어 보았을 때 <회심곡>와 <회심가>, <빅발가>는 회심곡류에, <백발회심곡>과 <백발가(白髮柯)>는 몽환가류에, <권왕가>와 <극락가>, <불교경고가>는 왕생가류에, <나옹화상낙도가>는 토굴가류에, <인과약설>과 <인과응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는 경전가류에 각각 해당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은 생사의 고통이나 무상을 노래하거나 이것이 해결된 극락, 출세간을 제시하여 독자들의 정서적 공감을 유발하면서 그런 문제 극복에 필요한 유불의 덕목을 교시하는 서정적, 교술적 두 가지 성격을 보여 주었다. 이는 불교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많이 다룬 전체 불교 가사유형의 구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각 유형에 속하는 작품에서 <회심곡>와 <회심가>, <빅발가>는 생로병고의 고통과 극복 방안으로 강조한 세속적 도리의 서정적 교술적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백발회심곡>과 <백발가(白髮柯)>는 인생의 무상을 주로 표현하여 서정적인 성격이 우세하였고, <권왕가>와 <극락가>, <불교경고가>는 극락을 고통과 무상이 극복된 이상 공간으로 제시하여 안도감을 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교시하여 역시 서정적 교술적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나타냈고, <나옹화상낙도가>는 주로 출세간의 자유로운 생활과 기쁨을 표현하여 서정적 성격을 주로 나타냈고, <인과약설>과 <인과응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 등의 작품은 불교적 인과의 논리에 기초하여 유불의 덕행 실천, 특히 효행의 실천을 강조하여 교술적 성격을 주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불교가사의 민간전승이 전승된 작품의 성격으로 보아 세속 삶의 고통을 해소하고 위안을 받으려는 이유와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에 필요한 윤리 덕목을 강조하려는 두 지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승가 사회에서 수행 관련 불교가사가 주류를 차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핵심어 :** 경상북도지역, 민간전승, 불교가사 유형, 불교가사 작품, 서정적 성격, 교술적 성격

## 1. 서론

불교 가사는 승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승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라는 소위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 사찰이라는 공간에 주거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승려들뿐이지만 승가 공동체는 영외 신도들까지 모두 포괄한다. 사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서만 불교 가사를 향유한 것이 아니라 사찰 밖에서도 불교가사는 향유되었다. 불교의 경전을 승려만 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과 같이 불교 가사 역시 일반 불교 대중들이 수용하고 활용하였고 적극적으로 불교 가사를 창작하기까지 하였다.<sup>1)</sup> 종교 가사로서 근본적으로 포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글로 쓰인 불교 가사는 어려운 한문 경전보다 대중 전파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sup>2)</sup>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는 역사적으로 오랜 유교 전통을 가진 지역이다. 이런 전통과 연관하여 시조나 가사와 같은 시가 창작의 긴 역사도 가지고 있고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규방가사가 특히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되고 향유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 불교 가사도 그 한 부분을 점하고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이번<sup>3)</sup>에 발견한 여러 구체적 작품의 존재로 확인되었다.<sup>4)</sup>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 가사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승이 확인된 기존의 작품도 있었고, 새로 발견된 작품도 있다. 그런데 불

1) 17-18세기 자료로 알려진 <선설인과곡>, <권선곡>, <수선곡>, <인혜신사지형참선곡>, <마설가> 등의 많은 불교 가사 작품을 지은 인혜신사 지형을 비롯하여 근세의 권수근, 이경협, 이광수 등의 인물과 현재 안동지역의 불교 가사 작자 등이 이를 말해 준다.

2) 균여가 당시 우리말 표기 방식인 향찰로 <보현시원가>를 지어 대중 교화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했던 그의 시도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이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경상북도 지역 내방 가사 자료 조사 정리 및 DB 구축 사업(3년과정 2011.12.1-2014.12.30)의 1차년 추진 과정을 말한다.

4) 이런 면모에 대하여 권영철은 ‘종교적 모티브’(『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62-164쪽)에서 회심곡류, 몽환가류 불교 가사가 규방 가사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교 가사 여러 유형 가운데서 특정 유형이 주로 수용되고, 일부 특정 유형의 작품이 새로 창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여기서는 먼저 경상도 지역 민간에 전승되는 불교 가사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불교 가사의 어떤 하위 유형들이 주로 이 지역에서 수용되거나 창작되고 있는지를 기존 불교 가사 유형과 연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이 지역에 전승되는 불교 가사 유형의 전반적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불교 가사 유형에 소속된 하위 작품의 내용을 살핌으로써 경상도 지역 민간에 전승된 불교가사 작품의 구체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불교 가사가 실제 민간에 어떻게 수용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역 불교 가사 작품의 존재 양상과 유형, 작품의 구체적 성격을 함께 연관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 저간의 불교 가사 논의는 출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과의 구체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에 전승된 불교 가사의 구체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고려말 가사 문학의 시작을 알린 불교 가사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구하게 이어졌는데, 이번에 확인된 민간 대중과의 직접 교섭 부분을 논의하는 일은 불교 가사 자체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은 물론, 장차 규방 가사 일반의 성격을 밝히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의의 기본 자료는 이 지역에서 발견한 불교 가사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된 기존의 불교 가사집<sup>5)</sup>의 자료를 부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불교 가사 유형을 다룬 기존 연구<sup>6)</sup>를 참고하면서 논의를 더 심화하고자 한다.

5) 임기중, 『불교가사원전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6) 참고문헌의 불교가사 유형 관련 연구 논문 참고.

## 2.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의 존재 양상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 가사는 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창작되는 규방 가사들 사이에 혼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같은 작품이 여러 다른 곳에서 거듭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한 곳에서만 나타났다. <회심곡>, <백발가> 등 전승이 이미 확인된 기존 작품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극락가>, <인과응보가>, <부모은공가>, <부모은중가>, <인과약설>, <불교경고> 등은 특정 한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두루마리에 필사된 경우가 많았고, 장편 가사의 경우는 책자에 필사되어 전하기도 했으며, 활자화되어 전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더 특이한 것은 일부 작품의 경우 카세트 테잎에 음성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였다. <백발가>, <회심곡> 등 한국국학진흥원 작품은 두루마리 형태로, <백발회심곡>, <권왕가> 등 이상규 소장 자료는 필사본 책자로, 치암고택의 <인과약설>은 카세트 테잎 음성 녹음 상태로 존재하며, <부모은중가>, <인과응보가>, <불교경고>, <회심가>, <부모은공가>, <극락가> 등은 안동 내방가사 전승회 자료집에 활자화된 상태로 존재한다.<sup>7)</sup> 자료의 여러 가지 존재 방식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전승이 이미 확인된 경우, 새로 발견된 경우의 크게 둘로 나누어서 작품의 창작 시기 및 존재 양상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전승이 확인된 작품을 수용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을 들면 <백발회심곡>, <백발가(白髮柯)>, <회심곡>, <회심가>, <백발가>, <권왕가>, <나옹화상낙도가> 등 일곱 편이다. 작품의 내용에 따라 기존 작품의 확정된 이름에 대응시켜 보면 <백발회심곡>과 <백발가(白髮

7) 자료의 형태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작가가 대략 밝혀진 <권왕가>와 <나옹화상낙도가>를 제외하고 기존 작품은 작자 미상이 대부분이고 새로 발견된 작품은 작자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은중가>는 이만식, <부모은공가>는 조기영, <인과응보가>는 박성조, <불교경고>는 김후주, <인과약설>은 李源瑋이 제공자로 나타나 있어서 도표를 통한 별도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

柯)>는 <백발가>이고, <회심곡>과 <회심가>, <빅발가>는 <회심곡>이고, <권왕가>는 <권왕가>, <나옹화상낙도가>는 <나옹화상낙도가> 그대로 이어서, 실제 <백발가>, <회심곡>, <권왕가>, <나옹화상낙도가>라는 네 작품이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문헌의 기준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 전에 이미 발견되어 확인된 기존 작품부터 살펴보자 한다.<sup>8)</sup> <백발가>는 19세기 자료인 필사본 『불교가사』(1887)에 가장 먼저 실려 있고 그 뒤 20세기 자료인 필사본 『서방금곡』(1931)과 활자본 『석문의범』(1935)에도 실려 있다.<sup>9)</sup> 그래서 문헌상 19세기에 보이기 시작하여 20세기 전반기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심곡>은 역시 19세기 자료에 등장하는 작품이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곡>은 <속회심곡>, <특별회심곡>, <별회심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모두 그 이본들이다. <속회심곡>은 19세기에 나타난 작자를 알 수 없는 <회심곡>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 현재 실린 문헌은 『가집(1934)』, 『아악부가집(1934)』, 『악부(1930-1934)』 등으로 되어 있다. <특별회심곡> 역시 같은 계열로 『악부』에 실려 있고, <별회심곡>도 같은 <회심곡> 계열로 『석문의범(1935)』에 실려 있다.

이번에 발견된 <권왕가>의 경우 임기중이 정리한 자료에도 나타나는데 같은 작품 제목으로 『조선불교월보』17~18호(1913.6~7), 『불교』89~90호(1931. 11~12), 『석문의범』(1935)에 실려 있다. 지은이는 1800년대 활동한 東化竺典이라고 하여 19세기 문헌의 불교 가사에서 다루고 있다. <나옹화상낙도가>는 김태준의 『조선가요집성』(한성도서주식회사, 1934)에 실려 있고 여러 이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 다시 발견한 작품을 <백발가>, <회심곡>, <권왕가>, <나옹화상낙도가>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기존의 이름으로 <백

8) 여기서는 먼저 대분류로 기존 작품과 새로 발견된 작품으로 나누었고 이 두 항 아래에서 다시 작품의 구체적 자료 형태를 말하여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9) 임기중, 『불교가사원전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723쪽. 이하 기준에 밝혀진 불교 가사 문헌에 대한 논의는 이 책에 근거하며, 새로 발견된 경상도 지역의 불교 가사 자료 문헌에 대해서는 그와 연관하면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발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백발회심곡>은 이를 기록한 책자 표지에 丙申初春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최근의 丙申이 1956년이고 한 갑자를 더 올라가면 1896년이 되는데 이를 추적해 보면 구체적 기록 년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회심곡>에 해당하는 <빅발가>, <회심곡>, <회심가> 가운데 먼저 <빅발가>를 보면 임기중이 채록한 같은 작품인 <별회심곡>의 현대 국어 표기와 달리 ‘아래 ㄴ’을 사용하고 있어서 <빅발가>가 <별회심곡>보다 더 오래된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심곡>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 수 없어서 현재 임기중이 정리한 자료와 대비했을 때 그 선후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회심가>는 현대판 활자로 되어 안동지역 내방가사 강창 대회에 구연되어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제목도 본래 <회심곡>을 <회심가>라고 붙이고 있어서, 17-18세기 문헌에 나오는 휴정의 <회심가>와 명칭이 같지만 실제 내용은 회심곡류 가사와 일치하여, <회심가>와 <회심곡>이라는 작품 제목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현대 기록으로 보인다. <권왕가>의 경우는 제목의 변동 없이 책자에 필사로 전해지고 있는데 간기까지 분명하게 나와서 간행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이다. 이 지역에서 이번에 발견된 <권왕가>는 하나의 책자에 필사 형태로 전하고 있는데 간기로 보아 임기중이 수집한 자료보다 앞서며 표기상에서 역시 ‘아래 ㄴ’ 고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책의 끝에 ‘융희2년7월일경상남도동너부금정산범어사기간 질인포’라는 간기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융희2년’은 임기중이 수집한 자료보다 몇 년 앞선 1908년이다. 그리고 이 때 개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 이전에 이미 오래된 원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 준다. 또한 이 작품에는 시종일관 ‘아래 ㄴ’ 표기가 사용되어 국어표기법 상에서도 전승이 확인된 자료보다 년대가 오래 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나옹화상 낙도가>는 안동지역 내방 가사 경창 대회에 구연되었고 그 전사하는 과정에 여러 군데 단어가 변하거나 틀렸고 특히 작품 마지막 세 개의 행이 탈락하는 변모를 보여 주어 최근의 전사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불교 가사 작품을 수용하여 현재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불교 가사 작품은 기존에 채록되고 정리된 자료와 대비하여 <권왕가>나 <빅발가>의 경우 더 오래된 문헌이며 나머지 작품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이거나 다소 혹은 많이 늦은 시기에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새로 발견된 작품의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 여섯 편 가운데 <인과약설>은 현재 음성자료로만 남아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 음성자료 형태로 존재하는데, 작품 형식에서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1행 4음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1음보 4음절이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역시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불교경고가>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는 모두 안동 내방가사 전승 보존회에서 2001년 발간한 제5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고<sup>11)</sup>, <극락가>도 현재 83세의 김수행이라는 분이 제공하여 안동 가사 문학 전수회 2002년 제6회 자료집에 실려 있다.<sup>12)</sup> <인과응보가>는 『영남의 내방가사1』에 실린 작품이다.<sup>13)</sup> 음성 자료로 남아 있는 <인과약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동에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내방가사 경창 대회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최근에 수용되거나 창작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발견된 작품의 경우는 모두 현대적 인쇄 방법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창작 시기도 비교적 현대에 가까운 시기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sup>14)</sup> 음성 녹음 상태로 존재하는 <인과약설>이나 활자화된 <부모은중

10) 자료 소유자인 치암고택 이동수의 증언에 의하면 살아 있으면 올해 93세인, 재작년에 작고한 그의 선친(李源瑋)이 작고하기 10년 전부터 녹음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작품을 직접 지은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당시에 있던 작품을 수집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그 증언에 따르면이라도 이 작품이 20세기 이전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 『2001년 제5회 내방가사 경창대회 원고 모음집』(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한빛, 2001)에 <부모은중가>(63-67쪽), <불교경고가>(97-100쪽), <부모은공가>(101-103쪽)가 수록되어 있다.

12) 김수행, <극락가>, 『2002년제6회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한빛, 2002, 109~110쪽.

13) 박성조, <인과응보가>, 『영남의가사』1, 한빛, 2002, 51~56쪽.



가>를 비롯한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자료는 최근의 것인데 그 이전의 자료를 수용했거나 새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 3.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유형의 성격<sup>16)</sup>

여기서는 현재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불교 가사의 작품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며 이들 유형은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질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이것을 기존 불교가사의 유형 구도와도 대비하여 살피고자 한다.<sup>17)</sup>

14) 설령 기존의 오래된 작품을 저본으로 했다고 해도 개작을 거치면 새로운 이본을 창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

15) <인과약설>의 경우 음성 자료를 만들 때 사용된 원전 작품을 제공한 사람을 알 수 없고, 음성의 주인도 그 전에 있던 작품을 가져와서 읽었지 스스로 작품을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일부 작품만 창작했다고 하였다. 보존회의 작품인 경우 창작이 아니라 가져온 자료라고 하지만 두루마리 필사 형태의 원전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현대판 책으로 발간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는 원작의 존재 여부는 물론 원작의 창작 시기를 가늠하기는 더구나 어렵다. 그리고 자료 제공자가 당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략 그들의 현재 나이가 70대에서 90대에 머물고 있어서 작품 창작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를 넘지는 않아 보인다. 작품 향유자들의 연령대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이 모두 현대적으로 다듬어져 있다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전부터 널리 유포되었다면 수용이 확인된 작품의 경우와 같이 불교 가사 원전 자료를 2000년대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한 임기중의 『불교가사 원전연구』에 보고될 만한데 여기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광범하게 한 세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16) 논의의 순서상 먼저 작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귀결로 유형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먼저 유형을 논의하고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순서를 따랐다. 분포하는 작품의 전체적 성격을 먼저 논의하여 유형을 규정하고, 각 유형에 소속된 작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가는 방식을 택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론에서 구체론으로 나아가는 서술 방향을 택했다.

17) 유형을 논의하면서 폐쇄적으로 한 유형씩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유형을 부각하고 이들 유형들 사이에 보이는 상호간의 질서를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절 목차를 설정하는 것이 여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아 장의 단위에서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하여 먼저 불교 가사의 유형적 질서부터 말하고자 한다. 불교가사의 하위 유형은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불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여러 국면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들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sup>18)</sup> 그 국면을 들어 보면 세간과 출세간의 관계에서 처음 세속에서 마음을 돌려 먹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회심곡류, 부처의 위대함을 찬양하여 가르치는 찬불가류, 일체 무상을 교시하는 몽환가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가수행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토굴가류, 수행법으로서 염불 수행을 가르치는 염불가류, 참선을 가르치는 참선곡류, 특정 경전의 내용을 압축하거나 쉽게 알리는 경전가류 불교가사<sup>19)</sup>, 그리하여 마침내 나아가야 할 이상 세계를 제시하고 나아가게 인도하는 왕생가류, 또 일반적 불교 행사나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성공적 성취를 기원하는 발원가류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이런 불교 가사 유형들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무상을 알리는 불교 가사 유형으로는 회심곡류, 몽환가류를 들 수 있고, 출가하여 수행 실천하는 방법을 알리는 토굴가류, 찬불가류, 염불가류, 참선곡류, 경전가류 등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마침내 도달하게 될 이상 세계와 그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는 왕생가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런 전체와 관련되면서 일의 성취를 기원하는 발원가류 불교 가사 등으로 전체 유형을 묶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출세간의 승가 사회에서는 공동체 운영의 전체 과정과 관련된 모든 국면의 활동 내용이 여러 가지 유형의 불교 가사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수행과 관련된 불교가사 유형이 전체 유형 가운데서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은 다른 지역 문헌에서 수용이 이미 확인되고 이 지역에서 이번에

18) 줄고, 「토굴가류 불교가사의 갈래 성격과 이념지향」, 『국어교육연구』 제50집, 국어교육학회, 2012. 2, 460쪽 참고.

19) 경전가류 불교가사 유형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데 잠정적으로 불교의 특정 이념이나 경전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읊은 작품을 경전가류 불교 가사 유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시 발견된 작품 <나옹화상낙도가>, <백발회심곡>, <백발가(白髮柯)>, <회심곡>, <회심가>, <빅발가>, <권왕가>와 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극락가>와 <불교경고가> 등<sup>20)</sup>의 작품을 유형에 소속시켜 보면, 먼저 <나옹화상낙도가>는 출가 수행 과정을 읊은 토굴가류에, <백발회심곡>과 <백발가>는 무상을 노래하고 있어서 광의의 몽환가류 불교가사에 소속될 수 있고, <회심곡>와 <회심가>, <빅발가>는 모두 회심곡류 불교 가사에 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왕가>, <극락가>, <불교경고가>는 왕생을 권유하는 왕생가류 불교가사에 속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수용이 확인된 기존 불교가사는 회심곡류 불교 가사에 해당하는 작품이 세 편으로 가장 많고 몽환가류에 두 편, 새로 발견된 두 작품까지 합쳐서 왕생가류에 세 편, 토굴가류 불교가사에 해당하는 작품이 한 편 나와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가지는 성격과 상호 관계를 먼저 보면 서정성과 교술성을 모두 가진 회심곡류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스런 과정을 정서적으로 표현하여 서정성을, 권유 부분에서 교시를 내려 교술성을 보여 주었고, 몽환가류에서는 주로 늡음을 탄식하여 서정성을 바탕으로 대중과의 정서적 공감을 주로 보여주었고, 왕생가류에서는 이상 세계인 극락을 제시하여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고, 거기에 나아갈 여러 가지 방안을 교시하여 서정적 교술적 성격을 모두 보여주었고, 토굴가류는 현실을 벗어난 출가의 생활과 즐거움을 노래하여 서정성이 두드러졌다. 유형적으로 세속 탐착의 마음을 돌리려는 회심곡류와 인생이 몽환과 같아서 슬프다는 정서를 주로 표현하는 몽환가류, 그리하여 마침내 이상 세계에 나아가게 하려는

20) <극락가>에는 염불하는 것이 곧 극락이라고도 하고 염불마다 극락으로 인도하라고도 하며 극락의 모습을 그려 보이기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구체적 작품 내용에 있어서 기존 왕생가류 불교 가사 작품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성격은 왕생가류에 포괄할 수 있는 작품이다. <불교경고가>의 경우는 극락에 왕생할 것을 권유하여 역시 왕생가류 불교 가사에 포괄할 수 있는데 왕생의 방법으로 염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 윤리에 근거한 인심, 화합을 실천해야 황천에서 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특이하다. 세속 윤리의 실천이 선심 공덕이 되며 이것이 후생의 노자가 된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극락세계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생가류, 정신적 휴식을 부여하려는 토굴가류는 무상을 느끼고 위안을 받고 이를 벗어나려는 향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은 각기 가진 성격을 통하여 이 지역 가사 향유자들에게 정서적, 이념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심곡류의 서정적 성격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여성과 공감하고 그 교시적 성격은 그들의 삶을 더 윤리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몽환가류의 서정성은 늙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어 질곡 속에 늙어 가는 부녀자들의 인생을 위로하는 기능을 하고, 왕생가류는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과 그 방안을 교시하는 기능을 하며, 질곡의 현실을 벗어난 출세간의 생활과 즐거움을 나타낸 서정적인 토굴가류는 역시 위안을 주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성과 교술성을 가진 기존 불교가사 유형이 수용된 주된 이유가 그 성격과 관련하여 이런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회심곡류의 경우 가장 빈번한 수용 사례를 보여 주었는데 근본 이유는 여기서 살핀 내용에 따른 성격 때문에 무가<sup>22)</sup>, 잡가<sup>23)</sup>, 민요<sup>24)</sup> 등에까지 널리 수용되었고 대중 매체가 발달한

21) 이번에 조사된 지역 전승 불교가사는 시기적으로 한 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인용된 작품을 가지고 조선 후기 향촌 사족 가문의 시대적 상황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의 우려를 높인다.

22) 안동 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무가를 보면 <회심곡>이 수용된 양상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먼저 「7.안동지역무가」(김태곤, 『한국무가집』2. 집문당, 1979) 부분을 보면 <4.시무곡>(216-221쪽)에 <회심곡>의 저승 10왕 만나는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인근 지역의 무가를 보여주는 자료인 『한국의 무가』(윤동환, 민속원, 2007)에는 김장길본 무가 가운데 <5.문답>(303-314쪽)과 <12.신무풀이>(333-356쪽), 김명대본 무가 가운데 <9.신무풀이>(490-504쪽) 등의 부분에 역시 <회심곡>의 10왕전 부분이 무가적 문맥에 따라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구비문학대계』7-1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의 경상북도 봉화군편(임재해)의 「봉황읍무가」6에는 <회심곡> 전체 작품이 거의 훼손 없이 원형 그대로 나타나 있다.

23) 정재호가 편저한 『한국잡가전집』 I, II(계명문화사, 1984)를 보면 여러 가지 기존 잡가집을 영인하여 모아 놓고 있는데 여러 이본에 <회심곡>이 자주 등장한다. I 권의 경우 세 차례, II 권의 경우 한 차례 상호 완전히 같은 <회심곡>을 거듭 게재하고 있다. 잡가에는 <회심곡>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31호로서 경기회몰이잡가 예능보우자인 이성희가 편저한 『경서도창가사집』(이성

요즘의 세태에도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이 지역에서 다시 발견된 회심곡류 불교가사 유형에 해당하는 작품이 노래 <회심곡>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다음은 그 나머지 새로 발견된 불교 가사의 경우 <인과약설>, <인과음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 등 네 편의 경우이다. 불교 가사 유형으로 보면 이들 작품은 경전가류 불교 가사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전가류 불교가사 유형은 그 특성상 불교의 다양한 경전을 각기

회, 새로문화, 2006, 183~200쪽)을 보면 ‘제4장 불가(佛歌)’라고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회심곡>을 세 차례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잡가집에 보이는 <회심곡>의 수용 양상은 그 민간 수용의 또 다른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24) 경상남도 지역이지만 울산 민요를 담고 있는 『울산울주지방민요자료집』(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0, 396~398쪽)의 <상여소리>에 <회심곡>이 그 문맥에 따라 변경된 채 나타나거나, “경북상주지역민요의 특성연구(박효실,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문과 석사논문, 2011, 12)”의 기초 음성 자료 가운데 <회심곡>의 일부가 나타나는 등 민요에도 <회심곡>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를 더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7-1, 「경상북도 경주·월성편」, 조동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에서 <산재(齋)>(외동면민요72)에서는 노래 후렴 형식으로 ‘나무할미타불’을 반복하면서 실사 부분에 <회심곡>의 내용을 가져왔고, 『같은 책』(7-8, 경상북도 상주군편, 최정여·천혜숙, 1983)의 <상여소리>(낙동면 민요12, 205~210쪽)에서도 후렴구를 제외한 실사부분에서 <회심곡>의 내용을 가져 왔다. 그 외에도 『같은 책』(7-12, 「경상북도 군위군 편(2)」, 최정여, 1984)의 <자장가>(고로면민요, 761~762쪽)에서 아이를 칭송할 때 <회심곡>의 표현법을 차용해 왔다. 『같은 책』(7-13, 대구직할시 편, 1985)의 <아기재우는 소리>에서도 ‘아이’의 장래를 칭송할 때 <회심곡>의 표현법을 빌려 왔다.

25) 현대의 민요 가수나 일반 승려들까지 <회심곡> 음반을 내놓고 있어서 일상 속에서 <회심곡>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지금 현재도 <회심곡>은 <월봉스님회심곡>, <회심곡(동현스님)> 등의 음반(삼영불교음반)이 나와 재생이 반복되고 있다.

26) 기존의 작품을 이 지역에서 수용한 경우는 이 네 가지 유형만 나타나서 출가수행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발원이나 염불, 참선 등 출세간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 찬불가류, 염불가류, 참선곡류, 발원가류 등의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속 대중들에게 친숙하기 쉬워 보이는 찬불가류, 염불가류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지역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성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 회심곡류나 몽환가류, 왕생가류 불교가사 안에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찬불과 염불의 요소가 상당한 비중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유형을 더 요구하지 않고 이 지역 향유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네 가지 유형만으로 만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실제 작품들 간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 경전가류 불교가사 유형논의를 위해 먼저 이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존에 유통이 확인된 경전가류에 해당하는 작품의 예를 들어 보면 <법화일승가>, <진여자성가>, <육도가>, <원효대사발심수행가>, <보조국사계초심학인가> 등이 있는데 <법화일승가>는 『법화경』의 내용을 핵심만 축약하여 표현했고, <진여자성가>는 심우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읊었고, <육도가>는 『대품반야경』에 보이는 6바라밀의 실천을 내용으로 담아서 불경과 특정 불교 교리를 직접 작품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끝의 두 작품은 원효, 보조의 불교 저서<sup>27)</sup>를 가사로 변안한 것으로서 역시 불교 교리를 노래하였다. 이와 같이 구체적 내용이 작품마다 다르지만 어떤 불경이나 불교 교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전가류 불교가사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 새로 창작된 경전가류 불교 가사도 불교의 근본 교리인 『인과경』의 인과 사상이나 불경의 하나인 『부모은중경』의 내용이나 특정 승려의 가르침을 주로 표현하여 같은 경전가류 불교가사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새로 발견된 경전가류 불교가사 가운데 <인과약설>과 <인과응보가>는 『인과경』에 나타난 불교의 인과응보사상을 집중적으로 나타냈고, <부모은중가>와 <부모은공가>는 『부모은중경』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었다. 인과를 내용으로 하는 앞의 두 작품 <인과약설>과 <인과응보가>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인과를 작품 전개의 기본 논리로 하고 선과 악의 원인이 경사나 재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여 불교의 인과론을 작품 내용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뒤의 두 작품 <부모은중가>와 <부모은공가>에는 『부모은중경』의 중심 내용들이 표현돼 있다.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주제로 가져와 경전가류 불교가사 유형의 작품이 되었다. 경전가류 불교가사에 해당하는 네 편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

27) 원효, <발심수행장>, 『한국불교전서』 제1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90. 1~841쪽/  
보조, <계초심학인문>, 『보조전서』, 보조사상연구원, 1989. 167~169쪽,

도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충효와 같은 유교 윤리를 선행으로 교시하려는 지향을 보여 교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전승이 이미 확인된 작품과 새로 발견된 작품의 불교가사 유형들이 함께 맺은 상호 관계를 보면 역시 일정한 연결고리가 발견된다. 전승이 확인된 작품과 일부 새로 발견된 작품이 소속된 유형은 주로 회심곡류와 몽환가류, 왕생가류, 토굴가류 불교 가사 유형이 전부였는데 이들 유형은 삶의 허망함과 이를 극복한 다른 세계, 극복의 방안을 보여주어서 여성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받던 이중의 고통에서 위로 받거나 억압된 정서를 해소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지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집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서 계녀류 규방가사가 나왔듯이 이 지역 여성들의 윤리 실천의 요구에 따라 새로 창작된 경전류 불교가사에서 주로 충효와 같은 전통 유교 윤리가 선행의 핵심이며, 그 실천의 여부가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교술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이런 성격의 불교 가사 유형 다섯 가지를 불교가사 전체의 유형들과 대비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드러난다. 우선 전체 불교 가사 유형의 경우 이 장 전반부에서 말했듯이 토굴가류에서 출세간의 공간을 보여주고, 몽환가류에서 무상과 무상의 이치를 드러내며, 찬불가류와 염불가류, 참선곡류, 경전가류에서 그 극복을 위한 교리와 실천 수행을 말하고, 최종 목표인 극락을 제시하고 왕생을 권하는 왕생가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려는 의지를 담은 발원가류 불교 가사 유형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면 승가에서 불교가사는 수행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가사 유형을 중심으로 그 전제인 출가와 무상의 자각, 이를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발원가

28) 그래서 이들 유형은 규방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탄류 규방가사와 맥락이 닿을 수 있다.

29) 이런 측면에서 계녀류 규방 가사와 서로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앞뒤에 배치되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전승되는 불교 가사는 불교 인과 논리에 기초하여 유교 이념을 교시하는 경전가류와 四苦의 괴로움과 극복 방안을 권유하는 회심곡류가 가장 많고 무상을 슬퍼하는 몽환가류, 이를 벗어난 이상 세계를 보이고 나아갈 방안을 말하는 왕생가류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출세간을 보이는 토굴가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 지역 가사 향유자들의 교시적 요구와 정서적 필요에 따라 기존의 불교가사 유형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요컨대 기존의 것이 출세간의 수행을 중심으로 한 불교 가사 유형이 발달해 있었다면, 이 지역 민간 전승의 불교 가사 유형은 부녀자들의 정서적 해소와 교시적 요구에 관계된 불교 가사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승이 확인된 불교 가사 유형을 수용한 경우는 서정성과 교술성에 바탕하여 규방 여성들의 억압된 정서를 해소하고 극복하려는 지향과 연관되고, 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그 나머지 경전가류 불교 가사 유형의 경우에는 인과와 부모 은혜를 중시하는 불교적 이념의 바탕 위에 충효와 같은 유교 윤리를 실천하려는 의도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지역 불교가사 유형은 서정성과 교술성을 유형적 성격으로 가지고 자탄적 해소와 윤리적 교시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4. 지역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작품의 성격

앞에서 전승이 이미 확인된 작품과 새로 발견된 작품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를 깔고 각 유형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을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각 유형들이 가진 일반적 성격이 작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전승이 확인된 경우 작품의 모두 유형적으로 회심곡류, 몽환가류, 왕



생가류, 토굴가류에 해당했는데 새로 발견된 작품 가운데서는 <극락가>와 <불교경고가> 두 작품만 왕생가류 불교가사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작품은 경전가류 불교가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전체를 통괄해서 보면 회심곡류에 <회심곡>와 <회심가>, <빅발가>, 몽환가류에 <백발회심곡>, <백발가(白髮柯)>, 왕생가류에 <권왕가>, <극락가>, <불교경고가>, 토굴가류에 <나옹화상낙도가>, 경전가류에 <인과약설>, <인과응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 등의 작품들이 각각 해당된다.

먼저 회심곡류에 속하는 <회심곡>와 <회심가>, <빅발가>를 보면 작품의 기본 전개 구도가 ‘탄생->늙음->병듦->죽음->권유’이라는 기본 5단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sup>30)</sup> 차례로 각 단락에서는 부모의 뼈와 살을 빌렸다는 것, 다음은 부모 은공을 다 못 갚고 늙어서 망령이 난다는 것, 태산같은 병이 든다는 것,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사자의 손에 끌려가면서 자신이 서럽고 불쌍하다는 것, 저승 열시왕 앞에서 남녀 죄인과 선인의 처결을 받는 것, 자선 사업을 많이 하여 극락으로 나갈 것을 권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1)

천지만물 생겨날 때 조물주의 성덕이라/하느님전 명을받고 아버님전 뼈를타고  
 옥황님전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이삼십을 당하여도 어이없고 애닭구나  
 만물에 으뜸되는 인생이 되올적에/어마님전 살을타서 칠성님전 명을빌고  
 한두살 철을몰라 부모은공 잊을소냐/부모은덕 못다갚아 무정세워 여류하여  
 원수백발 돌아오니 절통하고 애달하다/망령이라 훔을보고 구석구석 웃는양은  
 할수없다 할수없다 (중략)

협협하고 약한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느라니 냉수로다  
 관수불러 설경한들 경덕이나 잊을소냐/제미쌀 썰코썰어 명산대천 찾아가서  
 하탕에 세수한후 축대일쌍 버려놓고/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비나이다  
 인삼녹용 약을쓰나 약덕이나 잊을소냐/무녀불러 곱을한듯 곱덕이나 입을소냐

<회심곡><sup>31)</sup>

30) 즐고, 「회심곡류 불교 가사의 단락 전개·구성과 선악·생사관」, 『어문학』제115집, 2012, 158쪽.

(2)

인세간에 나아가서 무슨선심 하였는가/바른대로 아뢰여라 용방비간 본을 받아  
 임금님께 극간하여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범을 세웠으니  
 배고픈이 밥을 주며 아사구제 하였는가/헐벗은이 옷을주어 구란공덕 하였는가  
 좋은곳에 집을 지어 행인공덕 하였는가/깊은 곳에 다리놓아 월천공덕 하였는가  
 (중략)

여자적인 잡아들여 엄형국문 하는말이/너의 죄목 들어봐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였느냐 동생향렬 우애하며/친척화목 하였느냐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씀 거역하고 동생강네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하며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듣데 욕을하고/ 마주앉아 웃음낙담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말을 일삼는년 시기하기 좋아한년/풍도옥에 가두리라

<회심가><sup>32)</sup>

(1)은 <회심곡> 가운데 탄생과 늙음, 병듦을 노래한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서적으로 각각 낳아준 은덕의 고마움, 늙어 망령이 나서 애닦고, 서럽고, 절통하고, 분통한 심정, 병이 들어 어머니를 부르고 냉수를 찾고 굶고 경 읽으며 산천에 빌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 등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성격은 규방에서 구속된 채 생로병사의 이 같은 유사한 과정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에게 가장 친화성이 높다. 이것은 신변타식류 규방가사에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며 탄로를 그 모티브로 하는 내용<sup>33)</sup>과도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한 여성 탄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본원적 고뇌까지 표현하여 정서의 성격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데 죽음의 단계에 해당하는 저승 심판 과정은 앞의 단계와 기능이 달라 보인다. 심판 과정에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세속적 유교 윤리로 되어 있고<sup>34)</sup> 그 윤리의 실천을 선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생사의 이원론적

31)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로서 원제목은 <회심곡이라>인데 여기서서 서술어를 떼고 붙인 제목이다.

32) 김수행, <회심가>, 『2009년 제13회 전국내방가사 경창대회 원고모음집』,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한빛, 2009, 140~150쪽.

33)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123쪽.

34) 줄고,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단락 전개: 구성과 선악 생사관』, 『어문학』 제115

질서<sup>35)</sup>를 통하여 봉건 윤리를 매우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성을 보여 준다. (2)에서 보면 남성의 경우 충성, 효도, 노인 공경, 빈자 구제, 급수, 월천, 활인 등의 항목을 가지고, 여성의 경우 시부모와 친부모에 효도, 친척화목, 부모 거역, 형제 화목, 마음 변동, 욕하기, 남의 말하기 등의 항목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세속의 유교 공동체가 요구하는 윤리를 잘 지키면 극락에, 어기면 지옥에 가는 것으로 서술하여 세속 윤리의 실천 여부가 생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있다. 윤리의 구체적 성격이 남자의 경우 국가 사회 윤리, 여성의 경우 주로 개인 가정 윤리로 되어 있어서 가정의 안과 밖이라는 역할 분담도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권유의 단락에서는 이런 교시를 담은 <회심곡>을 ‘허수말고’ 수신제가하여 치국안민에 힘을 쓰는 것이 내생 길을 잘 닦아 극락으로 가는 방법임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그 길을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죽음과 권유 단락은 생사 고통과 저승심판을 담보로 봉건 윤리의 실천을 심각하게 요구하여 교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교시적 성격과 상통하면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리실천 문제를 이생과 내생이라는 불교의 이원적 세계관과 연관시킴으로써 윤리 실천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심곡류 불교가사 작품의 향유는 향유자들의 정서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정서적 기능에서 출발하여 봉건 윤리의 필수적 실천을 요구하는 교시적 기능에까지 나아가서 정서적 해소와 이념적 요구라는 이질적 두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넓은 의미의 몽환가류 불교가사<sup>36)</sup>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백발회심

집, 한국어문학회, 2012.3. 146~152쪽.

35) 유교는 현실적이지만 한 사상인데 현세의 선행이 내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보여 현세와 내세라는 이원론적 세계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36) 작품의 중심 내용이 몽환이고 몽환적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작품만을 몽환가류 불교 가사 작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비중이나 문맥에서 몽환의 표현이 다소 축소된 작품의 경우도 삶을 몽환으로 보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광의의

곡>, <백발가(白髮柯)>는 인생이 무상하고 꿈 같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읊고 있다.

(3)

슬프고 슬프도다 어찌하여 슬프든고/ 이세월이 견고한줄 태산같이 바랬더니  
백년광음 못다가서 백발되니 슬프도다 (중략) 어제날 청춘몸이  
오늘날 수축없이 한구석에 앉았으니 뉘가그리 알아줄까  
생각하고 생각하니 절통하고 원통하다.

<백발가(白髮柯)><sup>37)</sup>

(3)에서 특히 늙음을 두고 ‘슬프도다, 절통하고 원통하다’라고 읊고 있는데, 이 작품의 다른 부분에서도 ‘한심하고 늙도다, 초로같은, 부평이라, 일장춘몽 꿈이로다. 설흔중에, 불안당, 마고할미, 눈물 콧물 흘러지고, 정신이 혼미하니, 때만쓰고, 성만내고, 오든 나비 돌아가고, 가련하다 우리인생, 독부되니, 해회탄식 뿐이로다, 일생 일사 공한 것을, 후회막급과 친구 벗, 처자권속도 쓸데 없고’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백발의 부정적인 면을 주관적으로 길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질곡 속에서 특히 개인적 뜻을 펴지 못하고 늙어가야 했던 규방의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의 허무감을 대리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자탄류 규방가사와 탄식적 정서 해소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심화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늙음을 탄식한 일반 규방 가사와 달리 선행을 통해서 늙음이 없는 극락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극복 방안을 같은 이 작품 후반부에 제시함으로써 자탄적 서정은 물론 교술적 성격에까지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왕생가류의 <권왕가>와 <극락가>, <불교경고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염불을 통하여 극락 갈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권왕가>에서는 옛 ‘상선

몽환가류 불교가사에 포괄할 수 있다.

37) 이만식, <백발가(白髮柯)> “열녀편 및 추절가”, 『영남의 내방가사』2, 한빛, 2002, 354~360쪽.

인'이 대승 경전을 독송하거나 불도량을 소쇄하고, 죽을 목숨을 살리는 등 갖가지 선행을 하고 염불을 하며 정토수행을 하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야될 극락세계를 사바세계와 대립되는 곳으로 표현하면서도 '번뇌씻글 제거하고 향스성덕 닦아나면 즈성불이 이안닌가'라고 하면서 '즈성극낙'을 말하여 사바가 바로 극락일 수 있음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극락을 보이고 극락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서 이 작품의 독자들은 극락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과 그곳으로 찾아갈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

앞아서 하는염불 청룡세계 아닐는가/ 누워서 하는염불 유리세계 아닐는가  
 새는날에 하는염불 동방세계 아닐는가/ 이리좋은 이극락은 아니가고 말성인가  
 청량산 돌담위에 극락문이 열렸다니 / 이리좋은 이극락은 사람마다 다간다네  
 <극락가><sup>38)</sup>

(4)<극락가>에서는 염불하는 곳을 청룡세계, 유리세계라고도 하고 염불을 통하여 극락을 간다는 내용을 읊어서 극락과 사바를 일원적으로 하나로 보여주거나 이원적으로 분리해 보여 주고 있다. 이 유형의 작품은 생사의 고통이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극락 세계를 보여주고 그곳에 나아갈 염불이라는 방안을 교시함으로써 질곡 속의 여성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넣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왕생가류에 해당하는 <불교경고>는 극락 왕생을 권유하면서도 왕생의 방안이 염불이 아니라 삼강오륜을 비롯한 인심 쓰기, 화목하기 등 마음을 닦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시적 화자는 작품 내적 청자를 소년, 억조 창생 만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윤리 실천을 강조하여 회심곡류 불교가사가 후반부에서 사회와 가정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던 것과 같은 교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이 작품의 경

38) 김수행, <극락가>, 『2002년제6회 내방가사 경창대회원고 모음집』, 안동내방가사 보존전수회, 한빛 2002. 109~110쪽.

우 같은 왕생가류에 속하는 작품이면서도 정서적 공감 기능보다는 교시적 기능에 더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권왕가>와 <극락가>는 극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는 환희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공감 기능을 수행하고, 거기에 이르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데서는 교시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불교경고가>는 교시에 치중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 세 작품에서 보인 교시의 내용에는 염불, 계행 지키기 등 불교 수행과 유교 윤리의 실천까지 포괄돼 있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기능은 토굴가류에 속하는 <나옹화상낙도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락과는 다르지만 온갖 고뇌가 있는 이곳과 전혀 다른 세계인 출세간의 공간인 깊은 청산을 상징하고 거기서 한적하게 살아가는 생활과 즐거움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세속의 정신적 압박을 해소하고 위로 받을 수 있어 정서적 공감이나 해소의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출세간의 공간에서 시적화자가 말한 ‘일대사공구’ 행위도 향유자들이 따라 배울 교시적 내용이기보다는 세속의 괴로움이 사라진 한 초월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행위로 보여 정서적 공감의 기능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앞의 유형과 다른 면모를 일부 보여 주었다.

기존에 전승이 확인된 이 지역 불교 가사와 일부 새로 발견된 불교가사는 작품 향유자들의 정서적 공감과 해소의 돌파구인 극락, 출세간의 공간을 우세하게 보여주고, 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불교적 수행이나 윤리적 실천을 요구하는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정서적 공감, 교시적 지향이라는 두 가지 필요와 요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 지역 여성들의 입장에 부합하는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 발견된 작품 가운데 <극락가>와 <불교경고가>를 제외한 <인과약설>과 <인과응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는 불교 교리를 내용으로 하여 유형적으로 경전가류 불교 가사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앞에 살펴 보았다. 이들 작품은 인과의 과정과 부모은공을 갖는 구체적 방법으로 유교 윤리의 실천을 요구하여 불교와 유교 이념의 혼용을 보여주고 있

다. 그래서 작품에 실제 두 이념이 어떻게 교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작품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과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인과약설>과 <인과응보가>인데, 두 작품 모두 『인과경』에 나타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인과와 함께 善人善果 惡因惡果의 인과 논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과약설>에서 ‘전생에서 지은원죄 자생해서 갚을거며/전생에서 지은공덕 자생해서 갚으리라’이라고 하거나 <인과응보가>에서 ‘인과응보 알아보세 현세지은 선악 업보/현세받고 내세받고 무량억겁 후세받네’라는 표현에서 그런 면모를 알 수 있다. 이런 인과의 논리에 근거한 선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5)

선해과를 심었으면 선해과를 얻을거며/악의씨를 심었으면 악해과를 얻으리라  
부모에게 불효하면 불효자녀 둘것이며/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자녀 두리로다  
<인과약설><sup>39)</sup>

(6)

덕을 닦아 종자뿌려 부부자손 화합하고/ 일가친척 우애하고 가꾸면은 풍년이라  
마음뉘고 효도하면 천지신명 보호하네/ 부모뿌리 남편줄기 자식열매 화목하세  
<인과응보가><sup>40)</sup>

(5)<인과약설>에서는 선악·인과와 그에 따른 효·불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나머지 부분에서 선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효도, 부업에서 욕하지 않고, 깨끗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삼업을 짓지 않는 것, 훈채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내공과 외공을 닦는 것 등을 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실천 여부에 따라 금생과 차생에 다른 과보를 받는다고 읊고 있다.

39) 치암고택 녹취본.

40) 박성조, <인과응보가> ‘교훈가편’, 『영남의 내방가사1』, 한빛, 2002. 51-56쪽.

(6)<인과응보가>에서는 화합과 우애에 풍년이 들고 마음을 닦고 효도 하면 천지신명이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현세의 선악 업보를 현세에도 받고 내세에도 받는다고 하여 인과의 구체적 과정을 특이하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20세 전까지는 부모의 業因, 20에서 40까지는 그 바로 전의 자기 업인, 40에서 60, 60에서 죽기까지도 각각 그 앞의 자기 업인에 따르고 60넘어 죽기까지는 현세와 내세의 거울이 된다고 하여 현생과 현생, 현생과 내생 사이의 인과를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집안 화합, 친척 우애, 효도를 착한 일로 보았고, 부모남편을 거역하거나 친구 권속과 불화하고 후배 후손을 학대하며, 악담과 시기 질투하는 것을 악한 일로 규정하였다. 이런 선악의 실천에 따라 현세나 내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응보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가 현전하여 마음 쓰기에 따라 세상천지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기도 하고 화택이 되기도 한다고 하여 일원적 세계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요컨대 인과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 가사 작품의 경우에는 인과라는 불교 이념을 기반으로 염불이나 불교 계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효도와 화목과 같은 유교 윤리를 인과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하여 교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두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여성이 지켜야 할 구체적 여러 항목을 제시하고 단순히 교시하는데 그친 것과는 달리 새로 발견된 경전가류 불교가사는 유교 덕목을 지켜야 할 근원적 이유로 불교의 이원론 또는 일원론적 인과의 논리를 연계시킴으로써 교시의 요구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즉 계녀류 규방가사에 비해 불교 인과 논리를 빌려 옴으로써 유교 덕목의 교시 효과를 더 강화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부모은중가>와 <부모은공가>의 두 작품은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7)

열달이나 태중에서 이몸하나 배양할 때/태산같이 육중하여 금석같이 무거운몸  
천만사가 괴로워서 즐겨할일 별로없이/근심걱정 다기우려 순산하기 원일더니  
〈부모은중가〉<sup>41)</sup>

(8)

십삭을 당도하사 이내몸을 낳으실 때/유혈이 낭자하여 사생을 도모하고  
목불인견 되었어도 괴로운줄 모르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고이고이  
길으실제

〈부모은공가〉<sup>42)</sup>

(7)〈부모은중가〉는 『부모은중경』의 懷胎守護恩, 臨產受苦恩, 生子忘憂恩, 咽苦吐甘恩, 廻乾就濕恩, 遠行憶念恩 등의 항목을 우리말로 충실히 풀어서 표현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고 그 효도가 바로 선근공덕이라고 하였다. 인간 세상에 부모 은혜가 제일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머니의 은혜가 깊고 크다는 점을 항목 별로 나누어 길게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친부모, 시부모, 처부모, 친구 부모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우리 부모, 또 나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선근 공덕의 제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효자 효부는 극락 연화봉 상품대에 갈 수 있고, 부모 은혜를 갚으면 금생의 부귀는 물론 후생의 영화도 누릴 수도 있다고 하여 효도를 닦아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효도해야 할 이유로 부처의 49년 설법에서 효부 효자를 강조했다. 는 사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내생의 극락 장엄, 금생과 후생의 부귀영화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금생과 내생의 윤회라는 관념과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논리 어느 면에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덕목으로 효도를 강조하여 불교 논리가 효도라는 유교 윤리 실천의 논리적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8)〈부모은공가〉도 『부모은중경』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1) 이만식, 〈부모은중가〉 “교훈가편”, 『영남의 내방가사1』, 한빛, 2002. 24-27쪽.

42) 조기영, 〈부모은공가〉 “교훈가편”, 『영남의 내방가사1』, 한빛, 2002. 57-59쪽.

이 작품에서는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기르며 먹이고 입히는 노고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이를 갚기 위해서, 인간이 삼강오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전제로 효심과 충심, 덕심과 자심, 화심 등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여 역시 충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품 내적 청자를 소년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삼강오륜을 알 것, 독심·색심·투심·기심·사심·진심·아심 등 팔악의 마음을 버리고 효심·충심·덕심·자심·화심·목심·신심·정심 등 팔선의 마음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충성하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 삼강오륜과 부모 은공을 모르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금수보다 못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팔악을 죽는 근본, 팔선을 사는 근본이라는 말은 했지만 윤리의 실천 여부가 금생과 내생의 윤회를 좌우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삼강오륜, 특히 효도를 포함한 팔선의 실천이 행복을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빛낸다는, 현실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이를 모르고 실천하지 않으면 금수보다 못하다는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부모의 은공을 드러낼 때만 불경의 내용을 가져 오고 실천과 그에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세적 논리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상 두 작품은 불교적 인과나 현실적 논리를 근거로 효의 실천을 소년 또는 남의 자식이라는 시적 청자에게 강조하여 노래 향유자 당사자는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한 교시 지향적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계녀가류 규방가사가 현실적 차원에서만 규훈의 실천을 강조한 것과 달리 소년들과 같은 일반 청자를 대상으로 불교의 이원론 또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교 윤리와 불교 덕목의 실천을 요구하여 교시적 내용이 계녀류 규방가사의 그것을 넘어서는 면모를 역시 보여 주었다.<sup>43)</sup>

43) 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인과약설>, <인과응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와 같은 경전가류 불교가사는 물론, 역시 처음 발견된 <극락가>, <불교경고가>와 같은 왕생가류 불교가사에서조차 삼강오륜, 특히 효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 5. 결론

이번 논의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가사를 통하여 승가사회의 불교가사가 어떻게 민간에 전승되었는지의 경위나 전승된 불교가사의 성격을 전승의 실태, 전승 불교 가사의 유형, 작품으로 나누어 논의하여 구명해 보았다. 전승 양상을 근거로 이 지역에 전승된 불교 가사의 유형과 작품을 기존 불교 가사나 규방가사의 그것에 대비하여 그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것은 불교가사의 민간 전승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면서 불교가사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밝혀 볼 수 있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먼저 민간 전승 불교 가사의 존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기존에 전승이 확인된 작품들이 이 지역에 다시 전승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발견된 작품들이다. 전자에는 <백발회심곡>, <백발가(白髮柯)>, <회심곡>, <회심가>, <빅발가>, <권왕가>, <나옹화상낙도가> 등 일곱 편이 보이고, 후자에는 <인과약설>, <불교경고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 <극락가>, <인과응보가> 등 여섯 편이 나타났다. 전승이 확인된 작품 가운데 <권왕가>와 <백발회심곡>은 책자에 필사본으로, <빅발가>와 <회심곡>은 두루마리 형태로, <백발가(白髮柯)>, <회심가>, <나옹화상낙도가>는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원고 모음집에 활자화된 상태로 각각 존재한다. 새로 발견된 작품은 <인과약설> 한 편만 카세

---

이것은 불교에서 유교 이념을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교 이념에 충실한 향유자들이 그 실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교의 인과 논리를 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조선초기 함허득통이 유불동론을 말하거나 조선중기 휴정이 유불도 삼교 일치를 주장하는 저서를 남긴 상황과는 다르다. 그 당시에는 유교 입국의 조선 사회에서 승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교 이념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최근 이 지역 불교가사 향유자들은 처음부터 유교적 세속의 가문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어서 역으로 유교 이념의 실천을 불교 이념의 논리에 기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 테잎에 음성 녹음 상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작품은 모두 안동내방가사 전승보존회 자료집에 활자화된 상태로 전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승이 이미 확인된 작품은 현재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작품보다 <권왕가>와 <빅발가>의 경우 더 오래 되었고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늦은 시기의 것이 있었는데, 새로 발견된 작품은 비교적 현대에 와서 유통되거나 창작된 것으로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났다.

민간 전승 불교 가사의 유형적 상관 질서의 측면에서, 기존 불교가에서는 찬불가류, 참선곡류, 염불가류 등 수행 관련 유형이 가장 높은 출현빈도수를 보인데 비하여 이 지역 전승 불교가사에서는 회심곡류와 몽환가류, 왕생가류, 토굴가류, 경전가류 등 정서적 공감과 교시에 관련된 유형이 높은 출현빈도 수를 보여 주었다. 회심곡류는 생사의 괴로움과 권유, 몽환가류는 무상의 슬픔과 권유, 왕생가류는 극락세계와 그 곳에 가는 방안 권유, 토굴가류는 출세간의 세계 제시, 경전가류는 윤회의 다양한 교시를 각각 내용으로 하여 이 지역에 전승되는 불교가 유형은 전체적으로 서정성과 교술성을 중심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성격의 불교가사 유형의 수용은 불교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승가 공동체와 달리 세속 규방에서 여러 가지 억압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윤리를 실천하거나 가르치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두 가지 입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나타난 불교가사 유형에서 전승이 이미 확인된 작품은 앞의 네 유형에 주로 속하고 새로 발견된 작품은 경전가류에 주로 속한 것이었다. 기존에 전승이 확인된 유형들은 그 특성상 작품 향유자의 정서적 요구와 일부 교시적 요구를, 새로 발견된 유형은 윤회의 윤리 실천을 강조하는 교시적 요구를 충족하기에 맞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이 지역에 전승되는 불교가사 유형의 두 가지 성격과 기능이 자탄류나 계녀류 규방가사의 그것과 상통하면서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 것이었다.

민간 전승 불교 가사 작품의 내면 성격의 측면에서, 여기서는 유형적 성격이 작품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회심곡류의 작품인 <회심곡>, <회심가> 등에서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공감을,

권유 부분에서 선행 실천을 요구하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왕생가류 작품인 <권왕가>, <극락가>, <불교경고가>의 경우는 극락을 제시하여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가르쳐서 정서적, 교술적이라는 두가지 요구에 부합했다. 몽환가류에 해당하는 <백발회심곡>, <백발가(白髮柯)>의 경우 늙음의 슬픔을, 토굴가류의 <나옹화상낙도가>는 출세간의 자유로운 생활과 즐거움을 주로 나타내서 정서적으로 공감과 위안을 주는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작품 가운데 <인과약설>, <인과응보가>, <부모은중가>, <부모은공가>의 경우에는 윤회라는 이원적 또는 일원적 불교 논리에 기초하여 윤회를 포괄하는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여, 현실적 당위의 차원에서 규훈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친 계녀류 규방가사와는 다른, 윤회 실천의 필연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과론이나 『부모은중경』의 내용이 <부모은중가>와 <부모은공가> 두 작품 구조의 기초가 되면서 그 논거 위에 효를 중심으로 한 윤회 이념의 실천을 일원적 혹은 이원론적 차원에서 강조하여 근세까지 봉건적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여성들의 태도가 이들 경전가류 불교 가사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金剛般若波羅密經』

『般若心經』

『圓覺經』

고봉 원저, 전재강 역주, 『고봉화상선요』, 일지사, 2002.

나옹, 『나옹록』, 장경각, 2001.

대혜 원저, 고우 감수, 전재강 역주, 『서장』, 운주사, 2004.

보조, <계초심학인문>, 『보조전서』, 보조사상연구원, 1989, 167~169쪽.

백련선서간행회, 『마조록·백장록』, 장경각, 1987.

원오극근 저, 『벽암록』, 妙觀音寺藏.

원효, <발심수행장>, 『한국불교전서』제1책, 동국대학교출판부, 1990.  
1~841쪽.

三祖 僧璨, <信心銘>, 『신심명·증도가』, 해인사, 1986.

침굉현변 원저, 이영무 번역, 『침굉집』, 불교춘추사, 2001.

침굉현변, 『枕肱集』(동국대학교 영인본)

김성배·이상보·박노춘·정익섭 주해, 『주해 가사문학전집』, 집문당.  
1981(1961초판).

김승동 편저, 『불교·인도사상사전』, 부산대학교출판부, 1992.

김종진, 「19세기 불교가사의 작가 복원과 그 문화사적 함의 -영암 취학의 <토굴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35집, 국제어문학회, 2005, 37~69면.

김종진, 「<토굴가> 전승의 경로와 문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제25집, 우리어문연구회, 2005, 429~454면.

김종진,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소명출판사, 2009.

김주곤, 『한국불교가사연구』, 집문당, 1994.

- 김풍기, 「침괘 가사의 은일적 성격과 그 의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5, 576~596면.
- 서종범, 「조선 중·후기의 禪風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한기두박사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원광대 출판국, 1993.
- 석옥청공 저, 이영무 역, 『석옥청공선사 어록』 역대고승총서 9, 불교춘추사, 2000.
-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2001년 제5회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한빛, 2001.
-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2002년 제6회내방가사경창대회원고모음집』, 한빛, 2002.
-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영남의가사』1, 한빛, 2002.
- 이상보 편저, 『한국 불교가사 전집』, 집문당, 1980.
-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 이종찬, 「佛儒仙을 섭렵한 침괘」, 『한국불가사문학사론』, 불광출판부, 1993, 434~443면.
- 이교철 외, 『禪學辭典』, 불지사, 1995.
- 李惠和, 「太古和尚<土窟歌>攷」, 『漢城語文學』 제6집, 漢城大學 國文學科, 1987, 29~45면.
- 임기중, 『불교가사연구』, 동국대출판부, 2000.
- \_\_\_\_\_, 『불교가사 원전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불교가사』 1, 2, 3, 4, 5권,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93.
- 전재강, 「불교가사 형성의 발생학적 정황」, 『우리문학연구』 제31집, 우리문학회, 2010, 205~237면.
- \_\_\_\_\_, 「참선곡류 불교 가사의 구조적 성격」, 『우리말글』 제50집, 우리말글학회, 2010, 183~207면.
- \_\_\_\_\_, 「왕생가류 불교 가사의 표현 방식과 세계 인식」,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21~347면.
- \_\_\_\_\_, 「신체 불교 가사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현실대응의 방향」, 『우

- 리문학연구』 제34집, 우리문학회, 2011, 183~212면.
- 전재강, 「토굴가류 불교 가사의 갈래 성격과 이념지향」, 『국어교육연구』 제50집, 국어교육학회, 2012, 459~486면.
- \_\_\_\_\_,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단락 전개 구성과 선악 생사관」, 『어문학』 제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135~165면.
- \_\_\_\_\_, 「〈염불가〉류 불교가사의 성격」, 『우리말글』 제54집, 우리말글학회, 2012, 133~160면.
- \_\_\_\_\_, 「발원가류 불교가사의 존재 위상과 성격」, 『어문학』 제117집, 한국어문학회, 2012, 179~205면.
- \_\_\_\_\_, 「찬불가류 불교가사의 지향적 주제와 다층적 갈래 성격」, 『우리문학연구』 제37집, 우리문학회, 2012, 385~421면.
- \_\_\_\_\_, 「몽환가류 불교가사의 개방성과 작가의식」, 『한국시가연구』 제33집, 한국시가학회, 2012, 31~62면.
- 정혜란, 「침핑 한시에 나타난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 『고시가연구』 1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295~326면.
- \_\_\_\_\_, 「침핑의 가사 문학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_\_\_\_\_, 「침핑의 한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최석환 펴냄, 『태고보우국사』, 불교영상, 1998.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 A study on the folk transmission of Buddhist Gasa(佛教歌辭) in Kyeongsangbukdo province

Jeon, Jae-gang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in order to re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Gasa which were transmitted to folk in Kyeongsangbukdo province in three aspects. The first aspect is about what kinds of Buddhist Gasas, what time Buddhist Gasas were transmitted to folk society in Kyeongsangbukdo province. The second aspect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Gasa styles, and the third aspect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Gasa works.

Firstly, in the aspect of what kinds of Buddhist Gasas, what time Buddhist Gasas were transmitted to folk society in Kyeongsangbukdo province, there are two kinds of Buddhist Gasas, which are the seven already discovered Buddhist Gasa works in different province before time and the six newly discovered Buddhist Gasa works these day in Kyeongsangbukdo province.

Secondly, in the asp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Gasa styles, there are five Buddhist Gasa styles which are the repenting song Buddhist Gasa style(回心曲類佛教歌辭), the empty dream song Buddhist Gasa style(夢幻歌類佛教歌辭), Nirvana song Buddhist Gasa style(往生歌類佛教歌辭), the hermitage song Buddhist Gasa style(土窟歌類佛教歌辭), the sutra song Buddhist Gasa style(經典歌類佛教歌

辭). And then the seven already discovered Buddhist Gasa works in different province are deeply related with former four Buddhist Gasa styles, but the six newly discovered Buddhist Gasa works these day in Kyeongsangbukdo province are deeply related with latter one Buddhist Gasa style.

Thirdly, in the asp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Gasa works, the repenting song Buddhist Gasa style(回心曲類佛教歌辭) includes three Buddhist Gasa works which are <Hwaesimgog(회심곡)>, <Hwaesimga(회심가)>, <Begbalga(백발가)>, and the empty dream song Buddhist Gasa style(夢幻歌類佛教歌辭) includes two Buddhist Gasa works which are <Bagbalhwaesimgog(백발회심곡)>, <Bagbalga(백발가)>. Nirvana song Buddhist Gasa style(往生歌類佛教歌辭) includes three Buddhist Gasa works which are <Gueonwangga(권왕가)> and <Geugrakga(극락가)>, <Buddhistkyonggoga(불교경고가)>. The hermitage song Buddhist Gasa style(土窟歌類佛教歌辭) includes one Buddhist Gasa work which is <Naonghwasangnakdogo(나옹화상낙도가)>. The sutra song Buddhist Gasa style(經典歌類佛教歌辭) includes four Buddhist Gasa works which are <Inguayagseol(인과약설)>, <Inguaeungboga(인과응보가)>, <Parentseunjungga(부모은중가)>, <Parentseungonrngga(부모은공가)>.

The works of the repenting song Buddhist Gasa style(回心曲類佛教歌辭) and the empty dream song Buddhist Gasa style(夢幻歌類佛教歌辭), Nirvana song Buddhist Gasa style(往生歌類佛教歌辭), the hermitage song Buddhist Gasa style(土窟歌類佛教歌辭) are mainly lyrical functioning as consoling readers, but the works of The sutra song Buddhist Gasa style(經典歌類佛教歌辭) are objective functioning as teaching readers.

Even though I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Gasa which were transmitted to folk society in Kyeongsangbukdo province in three aspects. But there could be the other things to study about these kinds of theme. I might continue researching the other kinds of theme next time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Kyeongsangbukdo province, the folk transmission, Buddhist Gasa style(佛教歌辭類型), Buddhist Gasa work(佛教歌辭作品), the characteristics of lyric,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

